



통계청(2012)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전체 고용률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지만 청년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8.5%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대학생 대상의 고민, 교내에서 원하는 상담, 스트레스 요인 등의 연구에서 가장 크게 지각하고 있는 문제가 진로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류진혜, 정은선, 2002; 손향숙, 김현정, 2006). 진로결정문제가 대학생에게 주된 스트레스 요소이며 개인의 삶에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현재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와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불투명한 취업전망 등의 이유로 인해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진중, 2005; 김영란, 태보영, 2001). 이러한 배경으로 진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다.

진로상담연구들의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Osipow, Camey, & Barak, 1976),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Niles와 Hartung (2000)은 떠오르고 있는 진로이론으로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 Lent 등의 사회인지적 진로이론, Sampson 등의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동안 진로결정에 인지적 접근이 주목받고 연구되어 온 바와 같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 중 하나로 인지적 변인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인지적 변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Hackett & Betz, 1981)으로, 진로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국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취, 진로결정, 진로관리와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이 나타났고(Hackett & Betz, 1981; Taylor & Betz, 1983) 국내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 진로준비행동, 진로적응, 진로미결정등과 관련이 있으며(김수지, 이정자, 2013; 정미예, 2007;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조성연, 홍지영, 2010) 진로태도성숙의 약 40%를 설명하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기학, 이학주, 2000)이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렇듯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또 하나 주목해볼 인지적 변인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인지가 진로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면서 진로관련효능감과 함께 꾸준히 주목 받고 있는 변인이다(이경희, 2001).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생각들로, 진로의사결정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 이러한 신념은 외적통제소재, 미결정, 불안과 우울, 흥미저하, 진로준비행동 방해 등을 야기하고 자존감,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orbishley & Yost, 1989; Lewis & Gilhousen, 1981; Peterson, Sampson, & Reardon, 1991), 국내 연구 또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성숙, 진로미결정, 진로탐색행동등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구미라, 2007; 김세정, 2008; 김순주, 2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고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낮은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준비행동과 진로태도성숙을 이루고(김수리, 2005; 김수리, 이재창, 2007),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각

하위요인 간 의미 있는 부적상관이 나타난 연구결과(김선우, 2006)등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진로연구에서 인지적 접근 경향성이 두드러졌던 한편으로 진로 관련 연구에서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과정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연구의 축적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는데(임은미, 2011),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인으로 인지와 더불어 정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의사결정 과정은 이성과 합리성 외에도 직관과 정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관계와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Kriehock, 1998). 정서와 인지 과정은 상호 관련되어 있어 정서는 판단을 내리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에 대한 선택적 주의를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사건에 대한 지각이나 기대는 그 사건에 대해 유발되는 정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지가 정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Lazarus, 1991; 진현정, 2011 재인용). 이러한 배경은 기존에 인지적 접근의 초점에 맞춰져 있던 진로연구에서 벗어나 정서나 맥락 등 다른 변인들을 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지능 이론들은 정서가 인지와 더불어 상호작용하며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이끌어 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Bar-On, 2000; 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7), Bandura(1977/2001)는 정서가 일반적인 정보처리와 관련되며,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라고 보았다. 부정정서에 관한 개인경험은 실패나 부적절함에 관한 기억으로 인해 낮은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고, 긍정 정서는 그

와 반대로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킨다. Brown, George-curren과 Smith(2003)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고, 직업 헌신에 대한 명확성과 확신이 크다고 보고 하였다. 국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서지능이 진로성숙,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긴밀한 관계를 보였으며(강주영, 2006; 박용두, 이기학, 2007; 이중희, 200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으로서 보고되었다(유나현, 이기학, 2005).

진로결정은 다른 일반적인 의사결정보다 좀 더 복잡하여 불안과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 1996). 이러한 진로결정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는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고 부정적 정서는 또 역기능적 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다(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또한 Beck(1976)은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모델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들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을 때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스트레스에 관한 취약성은 또한 낮은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련이 있고(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정서를 쉽게 인식하고 조절하는 사람은 주어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Trinidad, Unger, Chou, Azen, & John, 2004)를 바탕으로 진로결정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 유발과 관련된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의 진로 연구에서 인지와 정서 변

인에 대한 연구의 한계는 정서와 사고가 어떻게 체계화되어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진로와 관련한 연구에는 관계변수들 간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는 반면,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특성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지 알고자 군집분석을 하거나 유형화를 통한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진로에서의 유형화 연구는 군집의 종류와 특성을 밝힘으로서 각 집단에 보다 적합한 진로 상담을 하는 것에 도움을 받고자 함에 있다(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정서가 인지와 서로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데 같은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정서경험 양상은 개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Clore와 Gohm(2000)은 정서 관련 정보처리에 관여하는 개인차 변인으로 세 가지 정서 경험 특성, 정서강도, 정서 주의력,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개인 간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정서변인은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서강도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로, 정서적인 사건에 대한 각성수준과 반응성으로 정의된다(Larsen & Diener, 1987). 그리고 개인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정서를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정서인식명확성이라고 한다(Slovev & Mayer, 1990). 정서를 지각하는 정도나 정서를 얼마만큼 크게 느끼는지 등에 따라 정서 경험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심리적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아름, 이지연, 2011). Gohm(2003)은 정서유형 연구에서 정서 인식 명확성은 높고 정서강도는 약한 침착(cerebral)집단, 정서 인식 명확성과 정서 강도가 모두 낮은 억압(cold)집단,

정서 인식 명확성과 정서 강도가 모두 높은 솔직(hot) 집단, 정서인식 명확성은 낮고 정서강도는 높은 혼란(overwhelmed) 집단을 구분하였다. 정서유형에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인식 명확성은 낮고 정서 강도가 높은 혼란(overwhelmed)집단과 정서 인식 명확성과 정서 강도가 모두 낮은 억압(cold)집단은 자신의 기분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기보다 회피적인 전략을 사용하며,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 인식 명확성은 높고 정서 강도는 약한 침착(cerebral)집단과 정서 인식 명확성과 정서 강도가 모두 높은 솔직(hot) 집단은 회피적이지 않으며 자존감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김수안, 민경환, 2006;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 2008).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Gohm과 Clore(2000)의 연구에 기초하여 정서경험을 정서 관련 정보처리에 관여하는 개인차로서의 정서경험 특성으로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강도 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역기능적 진로사고 정도와 정서경험 차이가 효능감 정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하였다. 실제 진로 선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개인에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 작업의 필요성이(유나현, 이기학, 2008) 제기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라는 인지적 요소와 개인의 정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요인을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각 변인들이 대학생 집단에서 어떤 군집으로 존재하는지, 이러한 집단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진로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들이 인지, 정서, 행동 등 단편적인 변인들을 강조한 연구에 그치고 대부분 변인들 간

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를 한 것에 반해 군집분석을 활용한 인지 요인과 정서 요인 간 하위유형을 살펴보는 방법은 관련변인들이 현재 개인에게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입 전략을 차별화하고 다각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각 군집별 인지 요인과 정서 요인이 어떠한 조합으로 서로 상호작용하여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진로 상담 시 내담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개입들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350부 중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3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한 대학생 중 남학생이 75명(24.8%), 여학생이 227명(75.2%)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71명(23.5%), 2학년이 48명(15.9%), 3학년이 104명(34.4%), 4학년이 79명(26.2%)이었다. 연령은 평균 21.6세이고 표준편차는 3.00이다.

### 측정 도구

#### 진로사고 척도(Career Thought Inventory: CTI)

진로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인지적 정보처

리이론과 인지치료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Sampson 등(1996)이 개발하고 이재창, 최인화와 박미진(2003)이 번안한 진로사고 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사고검사는 진로에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를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48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3가지 하위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결정혼란은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혹은 정서적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거나 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한 척도이고, 수행불안은 진로의사결정과정의 결과에 관한 일반화된 불안을 측정하며 외적갈등은 중요타인에게서 얻는 정보와 자신이 지각한 정보의 중요성 간에 균형 조절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반영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신뢰도는 전체 .95, 의사결정혼란 .92, 수행불안 .83, 외적갈등 .66으로 나타났다.

#### 정서인식명확성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1995)이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서인식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으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Mayer & Stevens, 1994), 정서적으로 더 적응적(최요원, 이수정, 2004)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느낌을 명확히 경험하는 정도인 정서인식 명확성 척도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중 1, 2, 4, 7, 11문항이 역채점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 정서강도 척도(Affect Intensity Measures:

##### AIM)

본 연구에서는 정서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Larsen과 Diener(1987)가 개발하고 김은숙(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강도 척도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체험하는 데 있어 정서의 크기 혹은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Gohm(2003)은 정서 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정서를 약하게 경험하는 사람보다 더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며 정서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 12, 16, 19, 24, 26, 28, 29, 31, 33, 37, 40문항이 역채점되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s(1983)가 개발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의 단축형인 CDMSES-SF를 이은경(2000)이 타당화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측정할 수 있다. 총 25문항, Likert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4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전체 .91, 목표선택 .88, 직업정보 .79, 문제해결 .78, 미래계획 .71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역기능적 진로사고,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역기능적 진로사고,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변인들이 군집화될 수 있는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군집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기초통계와 상관

역기능적 진로사고,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정서인식명확성( $r=-.54, p<.01$ )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r=-.71, p<.01$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 정서인식명확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r=.40, p<.01$ )은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정서강도는 역기능적 진로사고 하위요인 중 수행불안( $r=.17, p<.01$ ), 외적갈등과( $r=.15, p<.01$ )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제외하고 역기능적 진로사고 전체와 정서인식명확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주요 변인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결과(전체)

*	1	1-1	1-2	1-3	2	3	4	4-1	4-2	4-3	4-4	M	SD
1	1											1.17	.46
1-1	.93**	1										.90	.56
1-2	.87**	.72**	1									1.51	.54
1-3	.67**	.54**	.51**	1								1.08	.53
2	-.54**	-.52**	-.43**	-.40**	1							3.46	.58
3	.10	.02	.17**	.15**	-.03	1						3.79	.50
4	-.71**	-.70**	-.60**	-.37**	.40**	.05	1					3.45	.53
4-1	-.70**	-.70**	-.60**	-.34**	.38**	.04	.92**	1				3.60	.60
4-2	-.56**	-.55**	-.46**	-.27**	.34**	.02	.85**	.70**	1			3.61	.63
4-3	-.28**	-.26**	-.13*	-.27**	.19**	.05	.48**	.29**	.32**	1		3.59	.77
4-4	-.60**	-.57**	-.57**	-.28**	.35**	.03	.81**	.67**	.63**	.27**	1	2.85	.66

\*\* $p < .01$ 

1. 역기능적 진로사고, 1-1. 의사결정혼란, 1-2. 수행불안, 1-3. 외적갈등, 2. 정서인식명확성, 3. 정서강도,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1. 목표선택, 4-2. 직업정보, 4-3. 문제해결, 4-4. 미래계획

#### 군집분류와 군집별 특성

역기능적 진로사고,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강도 세 가지 변인을 군집변인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6개 내지 7개 정도의 군집이 제안되었으나 선행연구에서의 내용과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 4개의 군집으로 나누었다. 2단계에서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K-평균 군

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군집1은 114명(전체의 37.7%), 군집2는 48명(전체의 15.9%), 군집3은 61명(전체의 20.2%), 군집4는 79명(전체의 26.2%)으로 나타났다. 정서 경험 군집에 대한 집단명은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명명하였는데(이경희, 김봉환, 2010; 이지연, 김아름, 박미란, 2010; 조소현, 2004; 천부경, 2012; 최해연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최해연 외(2008)의 연구에서 명명된 것을 바탕으로 집단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명명

표 2. 군집의 유형 분포

군집유형	군집 1 역기능적 진로사고 억압집단	군집 2 기능적 진로사고 솔직집단	군집 3 기능적 진로사고 침착집단	군집 4 역기능적 진로사고 혼란집단
빈도(비율)	114명(37.7%)	48명(15.9%)	61명(20.2%)	79명(26.2%)

표 3. 최종 군집별 표준화 점수

	군집 1 역기능적 진로사고 억압집단	군집 2 기능적 진로사고 솔직집단	군집 3 기능적 진로사고 침착집단	군집 4 역기능적 진로사고 혼란집단
역기능적 진로사고	0.23	-0.27	-1.34	0.84
정서인식	-0.08	0.56	1.07	-1.05
정서강도	-0.67	1.27	-0.44	0.50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  $M=0, SD=1$

하였다. 군집1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평균보다 높고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강도는 모두 평균보다 낮아(cool) 역기능적 진로사고 억압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2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평균보다 낮고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강도는 평균보다 높아(hot) 기능적 진로사고 솔직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3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평균보다 낮고 정서인식 명확성은 평균보다 높으며 정서강도는 평균보다 낮아(cerebral) 기능적 진로사고 침착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4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평균보다 높고 정서인식 명확성은 평균보다 낮으며 정서강도는 평균보다 높아(overwhelmed)

역기능적 진로사고 혼란집단이라고 하였다.

각 군집을 독립 변인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강도를 종속변인으로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결과 군집에 따른 역기능적 진로사고,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강도 모두 유의미한 값을 얻었다. 사후검증 결과 .05 유의수준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군집4가 가장 높았고 군집3이 가장 낮았다. 또 정서인식 명확성은 군집3이 가장 높고 군집4가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정서강도는 군집2가 가장 높고 군집1이 가장 낮았다. 군집별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경험 수준 차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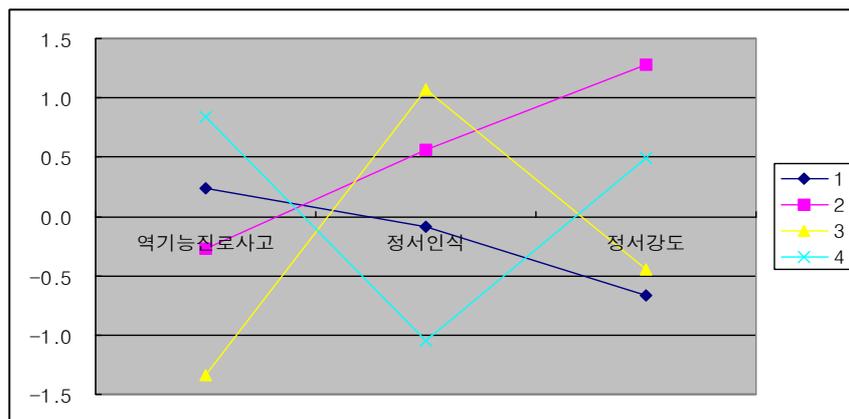


그림 1. 역기능적 진로사고, 정서인식, 정서강도에 따른 군집 프로파일

표 4. 군집별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경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3, 298)	Scheffé'
	역기능적 진로 사고 억압집단	기능적 진로 사고 솔직집단	기능적 진로 사고 침착집단	역기능적 진로 사고 혼란집단		
	M(SD)	M(SD)	M(SD)	M(SD)		
역기능적 진로사고	1.28(.27)	1.04(.32)	.56(.28)	1.55(.33)	138.97***	4>1>2>3
정서인식	3.42(.40)	3.79(.40)	4.08(.40)	2.86(.33)	131.78***	3>2>1>4
정서강도	3.46(.31)	4.44(.36)	3.57(.35)	4.04(.35)	119.98***	2>4>3, 1

\*\*\*  $p < .001$ 

표 5. 군집별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경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 검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3, 298)	Scheffé'
	역기능적 진로 사고 억압집단	기능적 진로 사고 솔직집단	기능적 진로 사고 침착집단	역기능적 진로 사고 혼란집단		
	M(SD)	M(SD)	M(SD)	M(SD)		
목표선택	3.42(.46)	3.81(.60)	4.09(.46)	3.40(.61)	31.69***	3>2>1, 4
직업정보	3.48(.53)	3.85(.58)	4.0(.62)	3.37(.61)	17.83***	3, 2>1, 4
문제해결	3.49(.80)	3.67(.58)	3.82(.69)	3.50(.86)	3.04	
미래계획	2.66(.59)	3.00(.62)	3.34(.59)	2.63(.59)	22.30***	3>2>1, 4

\*\*\*  $p < .001$ 

#### 다변량분석 및 사후검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변인들이 군집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이 때 BOX의 공분산행렬상의 동일성 검정 결과 집단의 동일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R(30, 133651) = 1.70, p < .05$ ), 양병화(2006)가 제안한대로 Pillai's Trace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제해결을 제외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 중,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이 군집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 = .27,  $R(12, 891) = 7.46, p < .05$ , 부분  $\eta^2 = .09$ ). 사후검정결과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 변인들이 .05유의수준에서 군집3과 군집2가 군집1, 4보다 크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군집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변인 차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를 한 것에 반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와 인지 변인이 어떤 유형으로 형성되는지를 파악하고 각 군집별 정서와 인지 변인의 상호작용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봄으로서 진로결정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강도, 정서인식 명확성을 군집으로 나누어 각 집단 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각 하위요인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인식명확성 역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강도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인식명확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각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난 반면 정서강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정서강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각 하위요인간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있어 가장 적응적인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Grabe, Carste, & Harald, 2004)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정서인식이 명확한 사람은 쉽게 회복될 수 있으며, 경험하는 정서와 상황에 좀 더 적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대처하며(이서정, 2006) 좀 더 적응적이며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도(김미경, 1998; Goldman, Kraemer, & Salovey, 1996; King & Emmons, 1990; Kring, Smith, & Neale, 1994; Nolen-Hoeksema, Paker, & Larson, 1994) 일맥상통한다.

둘째,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을 네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을 때 군집1은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평균보다 높

고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강도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역기능적 진로사고 역압집단이 나타났고, 군집2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평균보다 낮고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가 평균보다 높은 기능적 진로사고 솔직집단으로, 군집3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강도는 평균보다 낮고 정서인식명확성은 평균보다 높은 기능적 진로사고 침착집단으로, 군집4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강도가 평균보다 높고 정서인식명확성이 평균보다 낮은 역기능적 진로사고 혼란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때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모두 군집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군집1의 결과는 표준편차(SD)  $\pm 1$  범위안에 들기 때문에 유의성을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운 집단으로 판단되나 역압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이 분류한 집단 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높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으며 정서강도가 높은 군집4 역기능적 진로사고 혼란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고, 정서를 강렬하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정서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서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정신건강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Flett, Bator, & Blankstein, 1988; Flett, Blankstein, Bator, & Pliner, 1989; 김아름, 이지연, 2011 재인용; Flett, Boase, Mcandews, Pliner, & Bankstein, 1986; Larsen, Diener, & Emmons, 1986)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 군집4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게 나온 군집1 역기능

적 진로사고 억압집단은 정서강도와 정서인식 명확성을 모두 낮게 보고하고 있다. 억압집단의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한 가지 맥락을 살펴보자면 억압과 회피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Greenberg(2002)에 따르면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서를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억압과 회피를 방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정서를 바꾸거나 조절하기 위한 정서에 대한 정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Weinberger(1990)에 따르면, 억압집단이 저불안 집단보다 행동적 결과나 생리적 결과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저불안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의 주관적 고통을 보고했다. 억압자들이 스스로 잘 적응하고 자기를 잘 조절하며 스스로에 대해 만족스럽고 행동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자기개념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주로 방어적 혹은 회피적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정서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긴장이 정서에 압도된 군집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해볼 수 있다(Mendolia, 2002; 김아름, 이지연, 2011 재인용). 이렇게 군집1과 군집4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높고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진로연구에서는 인지적 접근 경향성이 두드러진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인지와 더불어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를 함께 통합하여 접근하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통합적 부부행동치료나 알아차림 인지치료, 수용-전념치료 등(최태한, 2007) 인지행동치료의

전통 내에서 제3의 흐름이 출현하고 있다. 이 방법들은 인지적 접근과 수용이나 탈융합, 경험에 집중하며 체험하기 등을 바탕으로 정서를 노출시켜 체험하게 함으로써 불안과 같은 이차적 정서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배재홍, 2007)들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연구에서 기존의 인지이론에 근거한 접근 뿐 아니라 새로운 통합적 접근의 시도로 진로상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인지와는 다른 주목할 만한 변인인 정서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최근 연구결과로 정서명료성, 마음챙김, 심리적 수용성이 신경증적 경향성의 부분매개를 통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보고되었고(강민서, 2011), 마음챙김 명상이 또한 스트레스 조절 효과와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들(김도연, 손정락, 2008)이 나오고 있다. 또 스트레스가 생활사건 자체보다 생활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과 대처능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나 정서 조절과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조절전략을 활용하여 진로상담에서도 인지적 개입과 더불어 정서 개입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에서 정서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유나현, 이기학, 2005; 정승현, 김금미, 2010), 혹은 진로결정상태에서의 정서 연구(김경욱, 류진혜, 2009; 황소연, 유금란, 2011) 등이 있었다. 진로 연구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 강도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서경험을 고려하여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정서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로 대인관계능력이나 심리적 안녕감, 정신

건강, 심리적 적응 연구 등이(이경희, 김봉환, 2010; 이지연, 김아름, 2011; 천부경, 2012; 최해연 외, 2008) 있었는데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정서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로 연구에서도 정서인식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변인과 정서변인의 유형을 확인하였고 각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군집3과 군집2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평균보다 낮고 정서인식명확성이 평균보다 높은 공통점이 있었다. 이 두 집단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인데 향후 진로상담 시 역기능적 신념을 낮추고 정서인식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입을 한다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군집1과 군집4는 비슷하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상담에서 이 두 집단의 개입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진로사고가 역기능적이면서 정서억압 경향성이 있는 군집1과 진로사고가 역기능적이면서 정서를 강렬하게 느끼는 군집4 두 집단이 호소하는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집 1인 역기능적 진로사고 억압 집단에 속한 억압 경향성이 있는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오는 경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신념이 부정적이거나 효능감이 낮아 진로선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스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관적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에 대해 회피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Weinberger, 1990) 상담 장면에서 정확한 문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반면 군집4인 역기능적 진로사고 혼란 집단에 속해 정서 인식은 떨어지면서 정서를 강하게 느끼는 내담자의 경우 진로에 대한 신념이 부정적이고 효능감 또한 낮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강하게 호소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정서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피하고자 동기화 되지만(Gohm, 2003) 오히려 불쾌한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적응적인 방략을 자주 사용(이지영, 2009)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담자의 경우 상담에서 개입할 전략은 군집1과는 다를 것이다. 이러한 집단의 차이를 숙지하고 차별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주로 밝히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유형화 연구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개인차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차별화한 개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성별의 표집 비율의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 시 성차 연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집 시 표집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군집이 4개로 나뉘어진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학년의 표집수와 군집별 사례수가 고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1학년(23.5%)과 4학년(26.2%)에 비해 2학년(15.9%)과 3학년(34.4%) 표집 비율이 고르지 못한 부분과 군집1(37.7%), 군집2(15.9%), 군집3(20.2%), 군집4(26.2%)간 사례수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년별 표집비율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은 사례수로 군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반복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두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하여 정서경험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은 보고일 수도 있고 회상을 통해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연구나 실험설계와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민서 (2011). 정서명료성, 마음챙김 그리고 심리적 수용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신경증적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주영 (2006). 부모애착과 정서지능이 자기지각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미라 (2007). 인문계와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 류진혜 (2009).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에 대한 정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73-92.
- 김도연, 손정락 (2008). 마음챙김명상이 금연유지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09-1022.
- 김미경 (1998). 정서주의력,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가 도움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우 (2006). 성역할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세정 (2008). 대학생의 통재소재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진로교육연구, 21(2), 93-107.
- 김수리 (2005).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수지, 이정자 (2013).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0(1), 119-136.
- 김수안, 민경환 (2008). 자신의 감정에 압도된 사람들의 성격, 정서특성 및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3), 45-66.
- 김순주 (2010).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지지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지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재수생의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름, 이지연 (2011). 완벽주의와 정서강도, 정서 인식 명확성에 따른 하위집단과 정신건강. 열린교육연구, 19(1), 197-218.
- 김영란, 태보영 (2001). 상담소 이용 만족도 조사 연구. 인간이해, 22, 17-36.
- 김은숙 (1997). 감정 강도의 개인차에 따른 정서. 언론연구논집, 24(1), 159-186.
-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

- 학회지: 학교, 9(2), 417-442.
- 류진혜, 정은선 (2002). 2002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연구. *대학생활 연구*, 20, 77-120.
- 박용두, 이기학 (2007). 정서지능, 지각된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41-1056.
- 배재홍 (2007).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정서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향숙, 김현정 (2006). 2006학년도 용인대학교 재학생 대학생활 실태 조사연구.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4, 115-135.
-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유나현, 이기학 (2005).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51-466.
- 유나현, 이기학 (2008). 진로선택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 간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81-95.
- 이경희 (2001). 진로신념검사(Career Beliefs Inventory)의 번안과 문항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김봉환 (2010).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명확성, 정서강도 및 정서주의의 군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69-384.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서정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인지적 정서조절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95-116.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01-414.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3). 진로사고검사의 한국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29-550.
- 이중희 (2006).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김아름 (2011). 완벽주의와 정서강도, 정서인식 명확성에 따른 하위집단과 정신건강. *열린교육연구*, 19(1), 197-218.
- 이지연, 김아름, 박미란 (2010).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에 따른 하위집단과 정신건강. *아시아교육연구*, 11(3), 181-207.
- 임은미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이지영 (2009). 정서강도와 정서조절방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217-1226.
- 정미예 (2007). 대학생의 진로장애 지각, 진로신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발달의 구조적 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미결정 및

-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 정승현, 김금미 (2010).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739-753.
- 조성연, 홍지영 (2010). 진로상담: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연구. *상담학연구*, 11(3), 1099-1115.
- 조성은 (2005).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정서 주의력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소현 (2004). 정서 강도와 정서 인식의 명확성이 자기 파괴적 충동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식행동과 중독적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현정 (2011).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부경 (2012).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명확성, 정서표현양가성의 군집비교.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요원, 이수정 (2004). 대학생의 정서인식의 개인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887-901.
- 최태환 (2007).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에 기반 한 대학생 진로개발 프로그램과 수용-전념 치료 모델의 적용.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 (2008).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명료성 및 정서표현 양가성의 군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59-73.
- 통계청 (2012). 일반고용동향.
- 황소연, 유금란 (2011). 진로결정상태의 정서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학생생활연구*, 14, 39-51.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박영신 역). 서울; 교육과학사(원전은 1997년 편찬).
- Bar-On, R. (2000).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Insight from the Emotional Quotient Inventory(EQ-i). In Bar-On & J. D. Parker (Eds.), *Handbook emotional intelligence* (pp.363-388). San Francisco: Jossey-Bass.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New America Library.
- Brown, C., George-Curran, R., & Smith, M. L. (2003).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career commitment and decision-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379-392.
- Clore, G. L., & Gohm, C. L. (2000). Individual difference in emotional experience: Mapping available scales to proces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679-697.
- Corbishley, M. A., & Yost, E. B. (1989). The effects of group and individual vocational counseling on career indecision and personal indecisiven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39-42.

- Flett, G. L., Bator, C., & Blankstein, K. R. (1988). Affect intensity and components of emotional sty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 185-186.
- Flett, G. L., Blankstein, K. R., Bator, C., & Pliner, P. (1989). Affect intensity and self-control of emotional behaviou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1-5.
- Flett, G. L., Boase, P., Mcandrews, M. P., Pliner, P., & Blankstein, K. R. (1986). Affect intensity and the appraisal of emo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447-459.
- Gohm, C. L. (2003). Mood 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94-607.
- Gohm, C. L., & Clore, G. L.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experience: Mapping available scale to proces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679-697.
- Goldman, S. L., Kraemer, D. T., & Salovey, P. (1996). Beliefs about mood moderate the relationship of stress to illness and symptom report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 115-128.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rabe, H. J., Carste, S., & Harald, J. F. (2004). Alexithymia and Personality in relation to dimension of psychiat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1*, 1299-1301.
- Greenberg, L. S. (2002). Emotion focused therap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 C.*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Krieshok, T. S. (1998). An anti-introspective view of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210-229.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 934-949.
- Krumboltz, J. D. (1994). The Career Belief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424-428.
- Larsen, R., & Diener, E. (1987). Affectintensity as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1-39.
- Larsen, R. J., Diener, E., & Emmons, R. A. (1986). Affect intensity and reaction to daily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803-814.
- Lazarus, R. S. (1991). *Em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R. A., & Gilhousen, M. R. (1981). Myths of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approach to vocational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296-299.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Mayer, J. D., & Stevens, A. A. (1994). An Emerging Understanding of the Reflective (Meta-) 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351-373.
- Mendolia, M. (2002). An index of self regulation of emotion and the study of repression in social contexts that threaten or do not threaten self-concept. *Emotion, 2*, 215-232.
- Niles, S. G., & Hartung, P. J. (2000). Emerging career theories. In D. A. Luzzo (Ed), *Career counseling of college students: An empirical guide to strategies that work* (pp.23-4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olen-Hoeksema, S., Parker, L. E., & Larson, J. (1994).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ed Mood Following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92-104.
- Osipow, S. H., Cam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s: A cognitive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 C: APA.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on, D. E. (1996). *Career Though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rinidad, D. R., & Unger, J. B., Chou, C. P., Azen, S. P., & John, C. A. (2004). Emotional intelligence and smoking risk factors in adolescents: interaction on smoking intentio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4*, 46-55.
- Weinberger, D. A. (1990). The construct validity of repressive coping style. In J. L. Singer(Ed), *Repression and dissociation; Implication of personality theory, psychopathology, and health* (p.337-38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원고접수일 : 2013. 09. 18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4. 05  
 게재결정일 : 2014. 04. 23

## Clusters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Emotional Experience in College Students and Their Difference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ae-sook Ko

Kumlan Yu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if clusters based on the scores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emotional intensity, and emotional clarity showed different level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order to test hypothesis, a cluster analysis was employed. A sample of 302 college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including Career Thought, Affect Intensity, Trait Meta-mood,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results indicated that four clusters were identified. The first group showed high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with low emotional intensity and clarity. The second group exhibited low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with high emotional intensity and clarity. The third group produced low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with low emotional intensity and high emotional clarity. The last group yielded high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high emotional intensity and low emotional clarity. The first and last group showed lowe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dysfunctional career thought, emotional intensity, the emotional clar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